

# 드라마 속 '복수'는 욕망이 더해지면 폭발한다

### '펜트하우스' '복수해라' 등 역물한 마음 신분 상승 욕구에 계략·선정적 연출로 점점 짝이 정의 구현보다 자극 치중 우려

원초적 본능이지만 누구나 실현하기는 어려운 '복수'는 과거부터 드라마의 주요 소재였다. 최근 드라마에서는 역물한 마음에 신분 상승 등에 대한 욕망까지 더해지며 그 힘이 가공할 폭발력까지 얻었다. 대표 작품이 김소옥 작가의 SBS TV '펜트하우스'다. 작가의 많은 전작처럼 이번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에게 '복수는 나의 힘'이다. 프리마돈나를 꿈꿨던 오윤희(유진 분)는 자신보다 실력은 못 하지만 금수저인 천서진(김소연)

에게 청아예술제 트로피를 빼앗겼다. 악(惡)으로 뿔뿔 뿔린 서진은 트로피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윤희의 목을 그어버려 윤희는 꿈 자체를 접어야 했다. 하지만 딸 배로나(김현수)가 엄마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덕분에 윤희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다. 서진의 딸 하은별(최예민)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재능은 로나에 영 못 미치자, 서진은 천성대로 사사건건 윤희 모녀를 방해한다. 매번 당하기만 하던 윤희 앞에 서진보다 뛰어난 배경을 지닌 펜트하우스 100층의 안주인 심수련(이지아)이 조력자로 등장한다. 그는 윤희가 펜트하우스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윤희의 욕망에도 불을 붙여 복수의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복수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간 고성과 폭력 등 악이 난무하는 가운데 시청률은 16%대(닐슨코리아)를 넘어서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로 자리를 굳혔다. SBS는 기세를 몰아 시즌2와 3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TV조선 주말극 '복수해라'는 아예 제목부터 '복수'가 주제를 확실히 했다.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강해라(김사랑)는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뒤늦게 남편 이훈석(정욱)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고 리포터였던 이력을 활용해 복수에 나선다.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욕망이 더해지며 복수는 초반부터 불이 붙었다. '고구마 전개' 없이 해라가 구은혜(윤소이), 차민준(윤현민)과 함께 브이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수하는 모습은 짜릿함을 안기며 시청률 3%대로 시작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종영한 MBN 월화극 '나의 위험한 아내'도 불륜을 저지른 남편 김윤철(최원영)을 응징하기 위해 갈 데까지 간 아내 심재경(김정은)의 이야기를 그렸다. '복수해라'와 '나의 위험한 아내'도 '펜트하우스'에는 못 미치지만 선정적인 연출과 전개가 눈에 띄었다. '복수극=자극적'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분

위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29일 "사랑, 도움 등 긍정적인 인간의 심리는 실행하기 쉽지만, 복수는 마음속에만 있는 감정이라 해소하고 싶은 욕망만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드라마로 그리기 좋은 소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즘 복수극들은 내 맘에 안 들면 다 복수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달려드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주인공이 저러겠나'보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드니 공감도가 떨어진다"며 "복수 코드가 정의를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자극적인 수단으로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짚었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도 "원초적이고도 보편적 본능인 복수는 스테디셀러 요소"라며 "펜트하우스' 등은 본능을 넘어서서 자극적이기만 한 전개가 불협음을 준다. 그렇다고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작품이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논문 표절 의혹' 홍진영 '미우새' 당분간 불참할듯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수 홍진영이 SBS TV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 당분간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최근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홍진영과 관련된 아이템을 방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해 그의 어머니도 당분간 녹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SBS는 '하차'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실제로 전날 '미우새'에서는 홍진영은 물론 그의 언니 선영 씨와,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모친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2018년 12월 자매가 합류한 이후 2년 만이다. 홍진영은 최근 조선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다. 국민일보에 그의 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74%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홍진영의 부친이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는 것이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연합뉴스



펜트하우스'



'나의 위험한 아내'



### 펑수, '동물 음악대' 창단 캐럴 부를 멤버 섭외 나서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펑수'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캐럴 부를 '동물 음악대'를 창단, 함께 할 멤버를 찾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첫 섭외 연락의 주인공은 '펑수'의 팬으로 유명한 배우 박보영이었다. 펑수는 박보영에게 강아지, 토끼, 다람쥐 등의 동물로 음악대에 함께 해 주기를 요청했다. 펑수는 또 42년 차 디바 인순이를 찾아갔고, 인순이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캐럴을 들려줬다. 이 밖에도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 지오디(god) 김태우를 찾아가 각각 '고릴라'와 '불곰'으로 멤버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김태우는 동물 음악대의 메인 보컬 자리를 두고 펑수와 캐럴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펑수의 '동물 음악대' 창단기는 이날 오후 7시 30분 EBS 1TV에서 처음 방송되며 오후 8시 '자이언트 펭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이후 다음 달까지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방탄소년단, 또 새 역사를 쓰다

### 빌보드 앨범 차트 5번째 정상... 그룹으론 비틀스 이래 최단기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다섯 번째 정상에 오르며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빌보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예고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앨범 'BE'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가 인용한 닐슨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매된 'BE'는 발매 첫 주 24만 2000장 상당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중 실물 앨범 판매량이 17만 7천장으로 점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가 3만 5000장,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가 3만 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에 스트리밍 횟수와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각각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 가장 인기 있는 앨범 순위를 낸다.

음원 10곡을 다운받거나 1500곡을 스트리밍한 경우 전통적인 음반 1장을 산 것으로 간주한다. 빌보드는 'BE'의 실물 앨범이 한 가지 버전으로만 나왔지만 높은 판매고를 올린 사실에 주목했다. 빌보드는 높은 앨범 판매고를 기록한 다른 앨범들이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용·한정판 등을 선보인 것과는 달리, 'BE'는 디지털 앨범과 '디럭스 에디션'이라 불리는 한 가지 버전의 CD로만 이용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첫 주 34만 7000장의 실물 앨범 판매량을 올린 방탄소년단의 전작 '맵 오브 더 솔: 7'도 다섯 가지 에디션으로 출시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러브 유어셀프 콜렉션',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솔: 7' 등으로 잇달아 빌보드 200 정상을 밟았다. 여기에 'BE'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방탄소년단은 2년 6개월 동안



새 앨범 'BE' 글로벌 기자간담회 나선 BTS. 앨범 5장을 연이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리게 됐다. 그룹으로서 비틀스 이래 최단기간이다. 비틀스는 '에스테이디 엔 투데이'(1966년 7월 30일 차트)부터 '더 비틀스'(1968년 12월 28일 차트)까지 2년 5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앨범 5장을 탄생시켰다. 전체 가수 중에서는 미국 래퍼 퓨처(1년 7개월) 이래 최단기간이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b>법무사 이영석사무소</b> 동구 범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b>드림케어솔루션</b>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알칼리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살)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b>제니골드 (귀금속카페)</b> 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러떼,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	<b>문화결혼상담소</b>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b>100세의료기 나누점</b>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산소발생기대어 재활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팔걸이전동수트패드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
<b>국수나무 광주신안점</b> 북구 서안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가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b>평화이사소파</b> 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앞)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b>보광세탁소</b>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b>법무사 김운희사무소</b> 목포시 정의로26-4번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연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b>하나부동산사무소</b>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b>석당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b>필스제화</b>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b>인철(仁喆)익스프레스</b>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b>웅추해신삼계탕</b>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b>매산철거·삼보소개소</b>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오래만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이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b>초대화랑</b>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b>고전방</b>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b>남도철학원</b>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